

시므온의 찬송

²⁸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²⁹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³⁰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³¹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³²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³³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눅2:28-33)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며,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전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주님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천적, 영적, 자연적, 세속적 선과 또한 물질적인 선으로 축복을 받는다. 이것들은 각각 이러한 질서 안에 있을 때 선이 되며 그 안에 행복이 있다. (AC.1422:2)

※ 위 1422번 글 2번 항은 스페텐보리 저,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인 '천국의 비밀'(Arcana Coelestia, 총 10,837개의 글로 구성, 라틴어로 기록)에 나오는 글이며, 이에 대한 Clowes 영역본은 아래와 같고, 이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대한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Here it is evident that "to bless the Lord" is to sing to him, to proclaim the good tidings of his salvation, to preach his wisdom and power, and thus to confess and acknowledge the Lord from the heart. They who do this cannot but be blessed by the Lord, that is, be gifted with those things which belong to blessing, namely, with celestial, spiritual, natural, worldly, and corporeal good; these, when they follow each other in this order, are the goods in which there is happiness.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눅2:28-33

‘시므온의 찬송’

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12:3)

※ *which belong to blessing, namely, with celestial, spiritual, natural, worldly, and corporeal good*, 복(福)과 관련된 이 다섯 가지 중, 우리는 보통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인 세속적, 육(肉)적 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 세 가지는 세 천국과, 그리고 뒤 두 가지는 우리가 사는 이 지상과 관련되어 보이는데요, 이 세속적, 육적 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과일의 알맹이를 보호해주는 겉껍질 같은 것으로서, 과일 전체가 하나의 선이지만, 그 안은 또 이렇게 몇 단계로 되어 있는..., 아무튼 이 지상에 머무르는 동안 선하고 윤택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는(*to bless the Lord*) 삶을, 일상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과 시므온이 만나는 장면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 탄생의 의미는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위낙 중요한 사항이라 한 번 더 정리,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천 년 전, 유대 땅에 오신 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내적 의미, 곧 속뜻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탄생의 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 ‘천국의 비밀’ 5804번 글과 5806번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통해 선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선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주시는데, 그 진리는 말씀에서 베냐민으로 표상되는 진리이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는 선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해 겉 사람이 거듭난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과 베냐민은 모두 선에서 비롯된 진리 즉 새로운 진리를 표상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모두 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역시 선에서 비롯된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라는 게 무엇입니

까? 그 안에 선이 들어있는 진리입니다.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진리는 선이 없는 진리, 그러니까 지식적 진리였다면 주님께서 노력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진리는 사랑이 있는 진리, 즉 선이 있는 진리,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이전의 잘못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됩니다. 선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서 베냐민은 세상에 오신 주님을 나타낸다는 것, 둘째는, 베냐민으로 표상되는 진리는 사랑 자체이신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빛이라는 것, 셋째는, 그러므로 그 진리 안에는 사랑이 있으며, 그래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넷째는, 이 진리는 진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 다섯째는,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은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탄생과 관련된 내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신앙인의 내면으로 오실 때, 즉 각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저 말로만,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의지로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의지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속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음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속사람의 생각과 겉 사람의 행위가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드디어 겉 사람이 속 사람에게 복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변화를 오늘 말씀에서는 시므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뜻으로 시므온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믿음이 그냥 진리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믿음이었다면, 이 의지에 속한 믿음은 자기가

‘시므온의 찬송’

믿는 바를 의도하고, 삶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므온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²⁸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한글 성경에는 ‘아기를 안았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아기를 팔로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팔이 무슨 뜻인지는 새 교회 분들이라면 다 아시지요?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고 ‘들어 올리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으로 표상되는 믿음은 주님을 온 힘을 다해 높이구요, 자신은 한껏 낮추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팔에 안아 들어 올리는 모습은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막12:30)

하신 주님 말씀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에 대한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주님을 찬송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²⁹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서는 종종 사람의 곁, 즉 곁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곁 사람은 속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곁 사람은 종이구요, 속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종을 놓아준다 말 합니다. 이 ‘놓아준다’는 말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요. 영어 성경의 표현은 ‘depart’입니다. ‘depart’라는 말은 ‘떠난다’는 뜻이지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떠난다’는 말은 속뜻으로는 곁 사람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진리 안에 머물러 있던 곁 사람이 선 안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 못해 진리를 실천하던 사람이 스

스로 원해서 진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종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한 변화들이 평화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평화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 8455번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 속에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즉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또한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이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평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므온의 믿음, 즉 의지에 속한 믿음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곧 사람의 거처가 진리에서 선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진리를 강제하던 상태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찬송은 계속됩니다. 30절입니다.

³⁰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

니

눈이 보았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모든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성적인 믿음 안에 있을 때와 의지적인 믿음 안에 있을 때의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것은 구원이라는 말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지금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1절과 32절에서는

³¹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³²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주님의 구원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서 '만민'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이방

‘시므온의 찬송’

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교회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진리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그러므로 선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지금 ‘이방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과 관련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마21:42)

여기서 건축자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린 돌은 진리이신 주님이세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진리를 더럽히고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21:43)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 ‘이방을 비추는 빛’과 그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영광’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당신의 교회를 비추는 내적 진리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33절에서는

³³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부모는 우리 내면의 교회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를 나타냅니다. 부(父), 즉 아버지로 나타내는 것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행위들과 연결되어 있는 개별적인 선이구요, 모(母), 즉 어머니는 개별적인 진리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삶의 행위들과 연결된 개별적인 선과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과 진리만이 교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는 내면의 교회를 이루는 선과 진리이구요, 구체적으로는 삶의 행위들과 연결되어 있는 개별적인 선과 진리들입니다. 그

들이 시므온의 말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적 진리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곧 구원이라는 확신이 시므온으로 표상되는 새로운 믿음으로부터 나와 부모로 표상되는 내면의 교회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든 확신이 내면의 교회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부모가 '시므온의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속뜻으로, 놀라는 것은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상치도 못한 변화를 인식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는 말씀은 우리 속으로 오신 내적 진리이신 예수님이 곧 구원이라는 확신이 내면의 교회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중재자로서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중재자로서의 진리는 내적 특성과 외적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모두 필요한 까

닭은 외적 특성이 없는 내적 진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을 볼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 사람에게 합리적인 면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은 주님의 지혜를 직접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기이고, 주님은 저 높은 데 계십니다. 사람은 육체이고, 주님은 영이십니다.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이해할 수, 인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간역할을 하는 무엇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어떤 특별한 준비를 시켜주시면, 사람은 다이렉트로 천사들의 지혜, 주님의 천국 그 찬란한 빛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며, 보통은 육에서 합리, 이성, 지성을 거쳐 영으로 나아갑니다.

※ 반대로 하늘의 것, 모든 영적인 것이 지상에 구현하려면 반드시 무슨 외형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지상과 천국간 상응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상의 무엇을 보면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천

눅2:28-33

‘시므온의 찬송’

국의 그 무엇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두 이런 상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다르게 표현하면, 지상 만물은 저마다 천국의 그 무엇을 담는 그릇이요, 용기(用器, *recipient*)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육체가 영혼을 담는 그릇이듯 말이지요. 태고교회 사람들은 모든 걸 이렇게 상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구하며, 부지런히 이 상응 훈련을 하면 점진적으로 내면이 열려 천국과 연결되어 모든 놀라운 삶, 곧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하시는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적 진리는 외적인 옷을 입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걸 사람의 가장 마지막의 안에까지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재자로서 세상에 오셨고요, 또 중재하는 진리로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내적 진리가 의지 안에 심어지는 것이며, 그래서 이성적이던 믿음이 의지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구원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지키고 행하기 위해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은혜가 교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사25:9)

원본

2016-10-23(D1)

청주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3-12(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